

## 주어-조동사 도치에 관한 소고

서진희  
(공주대학교)

Suh, Jin-Hee. (2000). On Subject auxiliary inversion in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6, 143~157.

It has been one of the puzzles in the English syntax that so called the rule of subject-auxiliary inversion (SAI) is not allowed in subject wh-movement while it is not obligatory in non-subject wh-movement in a root sentence. This asymmetry has been a puzzle since SAI itself was thought to be a part of question construction as we can observe from yes/no questions. The asymmetry gets more complicated in terms of sentence embedding, i.e. no SAI is permitted in the embedded context in questi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unified analysis for this unsolved grammatical phenomena on the basis of Rizzi (1997)'s recent work. The main idea is that SAI is not a I-to-C movement but one of I-to-Focus where Focus is a functional category and its phrase is located between CP and IP. The other proposal is that Wh-movement is no more homogeneous in terms of landing site between a root and an embedded sentence: the target for a wh-phrase in the former is the Spec of FocP (Focus Phrase) but the one in the latter is the Spec of CP as the standard theory assumes. Pesetsky (1999)'s analysis is discussed and its theoretical and empirical shortages are pointed out. Its rather radical proposals such as the one that the nominative case is just an uninterpretable tense feature of DP and the other that 'that' is no longer a complementizer but an element of I(nflection) make it less acceptable in spite of the possibility that it can get rid of Case theory entirely, which would be ideal in the spirit of minimalism.

## 1. 서론

의문문에 수반되는 다음과 같은 주어-조동사 도치(SAI, subject-auxiliary inversion) 규칙이 의문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규칙은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조동사 등이 속해 있는 기능범주 I(nflection)의 요소가 보문소 C(omplementizer)로 이동하는 성격을 갖는다. 즉, I-to-C 이동이라 할 수 있다.

(1) *Did Mary t read the book?*

이 논문에서는 위 문제와 관련하여 Pesetsky(1999)의 최근 제안을 검토하고 그 장점과 제한점을 논의한 뒤, 대안으로 Rizzi(1997)의 분석을 확대 적용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려 한다.

### 1. I-to-C 규칙의 독립성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다음과 같이 SAI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의문문 규칙의 일부가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왔다.

(1) a. *What did Mary read?*  
 b. *\*What Mary read?*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사실을 들어, 이 두 문법현상은 독립적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먼저,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는 의문문임에도 불구하고 (2b)처럼 I-to-C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다.

(2) a. *\*Who did read the book?*  
 b. *Who read the book?*

둘째로, 의문문이 아닌데도 I-to-C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3a)와 같은 소위 부정어 도치 (Negative Inversion) 구문과 (3b)와 같은 초소격 또는 PP

도치 (Locative Inversion) 구문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3) a. *Never would I talk to his sister about this.*  
 b. *In this room sat the king of France.*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문들이 있는데, (4a)는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된 경우이고, (4b)와 (4c)는 부사구의 전치에 의해 SAI가 수반된 경우이다.

- (4) a. *Should you see Mary, tell her that she should call me.*  
 b. *So vividly did he describe the scene that it seemed as if we had seen it ourselves.*  
 c. *Such was the impact of the article that the police had to be called in.*

일단, I-to-C 이동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뒤로 미루고, 이 시점에서 우선 우리는 이 규칙이 의문문과는 독립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절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Pesetsky (1999)의 제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2. I-to-C 이동과 비주어 의문사 이동

이 절에서는 오랫동안 의문의 대상이 되어왔던 의문사 이동에서 주어와 비 주어간의 비 대칭성의 문제를 다루려 한다. 이 비 대칭성은 이미 예문 (1)과 (2)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 주어 이동에서는 목적어 이동에서와 달리 SAI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최근 Pesetsky 이론을 소개하고 그 제한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 2. 1. 주어-비주어 의문사 이동의 비 대칭성

앞 절 (1)과 (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주어 의문사 이동에서는 I-to-C 이동이 일어날 수 없다. 반면에 비 주어 의문사의 의문문인 경우는 반드시 이 이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편의상 문법적인 문장들만 (5)에서 반복하여 제시하였다.

- (5) a. Who *t* read the book? - 주어 이동  
 b. What *did Mary* read *t*? - 목적어 이동

혹자는 (5a)에서 *who*가 이동되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I-to-C 이동이 없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의문문과 I-to-C 이동의 필연적 관련성은 유지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Pesetsky는 ‘the hell’이란 말이 (6b)처럼 제자리 의문사 *what*을 수식할 수 없는데 반해, (6c)가 문법적인 것은 주어 의문사가 이동했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6) a. What *the hell* did Mary read to you, anyway?  
 b. \*Who read what *the hell* to Mary?  
 c. Who *the hell* bought this book, anyway?

뿐만 아니라, (7)과 같이 의문사 이동이 분명한 목적어 이동의 경우에도 I-to-C 이동이 없는 간접의문문이 존재하며, (8)처럼 의문사 이동으로 간주 되어 온 관계 절의 경우에도 그러한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 (7) a. I asked whom she will meet *t* at the party.  
 b. \*I asked whom *will she* meet *t* at the party.  
 (8) a. I know the man whom she will meet *t* at the party.  
 b. \*I know the man whom *will she* meet *t* at the party.

결국, 이상의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은 주절의 경우, 비 주어 의문사 이동에만 I-to-C 이동이 수반되고, 종속절의 경우는 주어 및 비 주어 의문사 모두 이러한 이동이 없다는 것이다.

## 2. 2. 분석

먼저, 주절에 있어서 주어-비 주어 의문사 이동간의 이 같은 비대칭성에 대한 Pesetsky의 설명이 가정하고 있는 최소주의 이론에 입각한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하겠다. 첫째, 경제성 원리의 일부라 할 수 있는 ‘Attract Closest X’ (ACX, 가장 가까운 요소를 유인하라) 원리가 있다. 둘째, 이동은 이동의

결과가 비 해석적 자질을 제거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 해석적 자질의 제거는 이 자질을 소유한 두 요소가 이동을 통해 국부적(local) 판계를 맺을 때 가능하다. 셋째, Richards (1998)가 제안한 Principle of Minimal Compliance (PMC, 최소 응수의 원리)를 가정하고 있다. 이 원리는 어떤 한 이동이 출발점과 목표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제약 조건을 준수하면, 그 다음 이동부터는 같은 제약 조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상의 가정은 이미 다른 문법현상에서도 그 필요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Pesetsky가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은 첫째, I-to-C 이동에서 C가 I를 유인하는(attract)요소가 비 해석적(uninterpretable) 시제(Tense)자질 [uT]이라는 점이다. 즉, C에는 점검되어야 할 [uT]자질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주격(nominative)은 다름 아닌 명사구 즉 DP의 비 해석적 자질 [uT]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앞서 지적한 비대칭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자.

(9) 목적어 이동의 경우

- a. 이동 전 구조: C [ Mary will buy what ]
- b. I-to-C 이동: will C [Mary \_\_ buy what]
- c. Wh 이동: what will C [Mary \_\_ buy \_\_]

기저 구조 (9a)에서 C의 비 해석적 시제 자질 [uT]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일치(match)되는 자질이 있는 I를 (9b)과 같이 유인한다. 이 이동은 가장 가까운 요소를 유인하라는 이동 제약 조건을 준수한다. 따라서 (9c)에서 C의 다른 비 해석적 자질인 [+wh]가 목적어인 what을 유인하여 자질을 제거해 주는 두 번째 이동의 경우 ACX를 준수하지 않아도 최소 응수의 원리(PMC)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목적어가 의문사인 경우는 의문사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I-to-C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다음으로, 주어의 이동을 보자.

(10) 주어 이동의 경우

- a. 이동 전 구조: C [who will buy the book]
- b. Wh 이동: who C [ \_\_ will buy the book]

이 경우는 *who*가 C로 이동함으로써 C의 [+wh]와 [uT]의 두 비 해석적 자질을 동시에 만족시켜 삭제시킬 수 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주어 *who*가 주격 즉 [uT] 자질과 [+wh]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이동은 또한 ACX 요건도 만족시킨다. 여기서 가정해야 하는 것은 C의 입장에서 I나 주어 자리인 I의 Spec은 같은 거리에 있으며 최단거리라는 점이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주어 이동의 경우, I-to-C이동이 단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그러한 불필요한 이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최소주의의 입장에서 비교적 쉽게 설명될 수 있는데, 어떤 통사 작동(operation)이 불필요하면 최소주의에서는 경제원리에 의해 금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인의 경제원리(Economy of Attraction)로서 '가장 많은 자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요소와 일치하도록 유인하라'를 제안하여 SAI 가능성을 막고 있다. 두 번째로 가능한 질문은 주어 명사구가 I의 Spec에 있으면 I의 [uT]와 일치하여 자질 삭제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Chomsky(1998)의 주장을 받아들여 점검(cheked off)된 자질이 곧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단계(phase)에 이를 때까지 유지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P는 이러한 단계에 해당되며, CP가 단절어지면 주어의 [uT]가 비로소 삭제된다고 설명한다.

### 2. 3. 문제점과 제한점

그러나, 이러한 Pesetsky의 이론은 어떠한 의미기능과도 연관되지 않았던 격 이론을 문법에서 아예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종속질의 주어-목적어 대칭성에 대한 설명의 부담을 안고 있다.

- (7) a. I asked whom she will meet t at the party.  
 b. \*I asked whom *will* she meet t at the party.

(7a)에서는 목적어 외문사가 분명히 이동을 하였는데 I-to-C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장은 문법적이다. 오히려 (7b)처럼 SAI가 일어난 경우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Pesetsky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즉 보문소 *that*를 보문소가 아니라 C로 이동한 I의 요

소라고 보는 점이다. I의 다른 요소와 함께 that을 일종의 접어 중첩(clitic doubling)현상으로 보고 있다. 문장 (7)의 설명에 앞서, 이러한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다음 (11)의 문장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한다.

(11) What did John say [that Mary bought \_\_\_]?

목적어 what이 이동하려면 ‘가장 가까운 요소를 유인하라(ATX)’는 제약조건을 지켜야 하므로 I-to-C 이동이 필수적인데, 문장 (11)의 종속절에는 이러한 도치현상(inversion)이 없다. Wh이동의 연속 순환이동 (successive cyclic movement)을 가정할 때, 1단계 이동 (종속절)에서 분명히 문제가 된다. 사실 영어 외에 다른 언어나 Belfast 영어에서는 종속절의 도치현상이 종종 관찰되기도 한다(예: Who did John hope [would he see \_\_\_]?). 그러나 that이 Pesetsky의 제안대로 이동된 I 요소라면 하위 절 C의 [uT]자질 제거와 함께 ACX 요건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what이 하위 절의 C를 거쳐 이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단계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2) a. 이동 전 구조: C John I say [C Mary will buy what]  
 b. I-to-C (하위절) : C John I say [thati-C Mary willi buy what]  
 c. Wh 이동: C John I say [what thati-C Mary willi buy \_\_\_]  
 d. I-to-C(상위절) & Wh이동 : What did-C John \_ say [ \_\_\_ thati-C Mary willi buy \_\_\_ ]

이 같은 설명은 (13a)와 같은 that-흔적 효과(that-trace effect)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13) a. \*Who<sub>i</sub> did John say [ t<sub>j</sub> that<sub>i</sub>+C \_\_\_ will<sub>i</sub> buy the book]?  
 b. Who<sub>i</sub> did John say [ t<sub>j</sub> C \_\_\_ will buy the book]?

(13a)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하위 절의 주어 who가 1단계 이동시에 C의 [+wh]와 [uT]자질을 둘 다 점검하여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I 요소인 that가 불필요한 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불필요한 이

동을 한 *that*이 없는 (13b)의 경우는 문법적이다.

그러나 (12)의 설명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드러난다. 먼저 표준 영어의 경우, (14)의 비 문법성에서 알 수 있듯이 증속절에서는 C의 [uT]자절 점검을 위해 조동사 이동이 허용되지 않고, 접어 중첩 방식 즉, *that* 이동만이 가능한데, 그 이유에 대한 동기 부여가 안되어 있다는 점이다.

(14) \*What did John say *did* Mary buy \_\_\_?

또한 *that*이 생략되어 있는 문장, ‘what did John say Mary bought’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경우, 하위 절 주어인 Mary가 C로 이동하여 [uT]를 해결함과 동시에 ACX를 준수하게 했다면, *what*의 중간 이동 과정에서 하위 절의 C의 다중 지정어 (multiple specifiers) 자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다중 지정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다른 질문으로 (15a)에서 보듯이 주절에서는 반대로 왜 접어 중첩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게다가, 주절에 *that*가 올 수 없다면, 왜 주어 John이 C로 이동했다고 할 수는 없는지도 의문이다.

(15) a. \*What *that* John said that Mary bought \_\_\_?

b. \*What John said that Mary bought \_\_\_?

영어에 다중 지정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15b)는 해결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문법적인 문장, ‘what did John say Mary bought?’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마지막 해결 방안으로 *that*가 이동한 후에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절의 경우는 (15b)로 보아서 이 방안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러한 가설로서 다음과 같은 간접의문문이 설명되는지 알아보자.

(16) a. John asked what Mary bought \_\_\_.

b. \*John asked what did Mary buy \_\_\_.

c. \*John asked what that Mary buy \_\_\_.



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간접의문문의 경우에도 종속절에서와 마찬가지로 I-to-C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어 중첩 방식인 that가 이동해야 하는데, 이 경우 외현적(overt)일 수는 없다. 종속절의 주어 Mary의 이동은 단일 지정어 요건 때문에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영어의 경우 종속절에서는 C의 [uT]를 위해 주어가 이동하거나 I-to-C 이동 중에서 that의 이동만을 허용한다. 한편 간접의문문의 경우, 비주어 이동이면 that 이동이 필수적이고, 또한 삭제되어야 한다. 주절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that 이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어가 이동하거나 조동사가 이동해야 하는데 의문사가 주어이면 *유인의 경제 원리*에 따라 전자가 선택되겠고, 목적어이면 후자의 이동이 선택된다.

이러한 분석의 제한점으로, 범 언어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의 문제는 접어 두고, 영어만을 고려한다 해도, 분석과정에서 아무런 동기 부여 없이 작위적인 약정(stipulation)을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왜 종속절에서는 that 이동만을 허용하고 반면 주절에서는 that 이동이 금지되는 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점은 I-to-C 이동 대신 주어의 이동으로 C의 [uT] 자질을 점검해야 할 경우, 주절과 종속절에서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실증적(empirical) 약점이 있다. 즉, (16a)의 문법성을 위해서는 Mary가 C로 이동한다고 하거나 that이 이동 후 삭제된다고 해야 하지만, (15b)의 비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가능성이 다 배제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주절에서는 오직 I-to-C 이동으로서 SAI만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다. 끝으로 다음 (17)에 관찰할 수 있듯이 that-흔적 효과가 (17b)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이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 (17) a. \*an amendment which they said that will be law next year  
 b. an amendment which they said that next year will be law

### 3. 대 안

이 절에서는 SAI를 의문문과는 독립적인 현상으로 보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소개하려 한다. 제안의 핵심은 도치되는 I-요소가 초점 구

의 핵인 Focus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는 점이고, 또 IP와 CP 사이에 Focus Phrase와 같은 기능범주가 있다는 것이다.

### 3. 1. 좌측이동과 SAI

Pesetsky의 분석에 따르면 어떤 이동이 비 주어일 경우 ACX를 준수하기 위해서 특히 주절의 경우 반드시 I-to-C 로서 SAI가 있어야 한다는 예측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예측은 맞지 않다.

- (18) a. *Criticize himself* John never will t.  
 b. *Such behaviour* we cannot tolerate t in a civilized society.  
 c. *Your friend John*, I saw him here last night.  
 d. *What a strange dress* you are wearing!

(18a)는 동사구 전치 문장이며, (18b)는 화제화(topicalization) 구문, (18c)는 좌측 전위 구문(Left Dislocation), (18d)는 감탄문 등이다. 특히 감탄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wh이동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SAI의 부재는 설명하기 어렵다. 화제화의 경우도, 그 구체적인 구조와 기계화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동을 인정한다면 역시 설명하기 어려운 반례가 될 것이다.

게다가, 부정어 전치의 경우는 의문문과 달리 종속절에서도 SAI가 일어난다.

- (19) a. He promised that never in his life would he talk to his sister about this.  
 b. \*She asked me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I go there.

(19a)는 표준영어의 경우 종속절에서 I-to-C를 금지한 지금까지의 일반화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 3. 2. SAI는 I-to-Focus

지금까지 제시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때, SAI가 Pesetsky

가 제안했던 것처럼 ACX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이동, 특히 비 주어 Wh 이동 전에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이동이기 보다는, 관점을 달리하여 이 이동 자체가 어떤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SAI와 연관된 Wh이동이나 부정어 전치 구문을 볼 때 SAI는 초점 (Focus)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ocus는 기능범주로서 자신의 구를 갖는데 IP와 CP 사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대안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부정어 전치와 주절의 Wh이동이 CP가 아니라 FocP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SAI의 필수성을 위해서 I에 비 해석적 자질 [uFoc]가 있다고 가정하여, I-to-Focus 이동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가정할 것이며, 이는 Rizzi (1997)를 기반으로 서진희 (발표예정)에서도 주장된 바 있다.

(20) CP - TopP - FocP - IP - VP

즉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FocP가 반복될 수 없는 한, 부정어 전치와 주절의 의문사 이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공기제약이다. 이 예측은 다음에서 확인된다.

- (21) a. \**Why under no circumstances would you go there?*  
 b. \**Under no circumstances why would you go there?*

종속절의 경우, SAI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 Wh이동은 주절에서와 달리 CP로 이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써 (19)에서 나타난 문법성의 대조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의문사가 CP로 이동하는 간접의문문의 경우는 FocP가 없으므로 SAI가 있을 수 없다. 또한 (21)과 같이 주절에서와 달리, 종속절에는 공기제약이 없음도 다음에서 증명된다. 의문사 why는 CP로, 부정어구 under no circumstances는 FocP로 각 각 이동하기 때문이다.

- (22) *Mary asked John why under no circumstances would he go there.*

화제화 구(Topic Phrase)의 위치에 대해서는 (23b)과 (23c)의 문법성의 차

이가 TopP이 FocP에 선행한다는 증거가 되며, (23d)와 (23e)에서 드러난 부정어 전치 구문과의 어순상의 제약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된다.

- (23) a. *During the holidays, why did they invite Tom?*  
 b. \**Why did during the holidays, they invite Tom?*  
 c. I wonder *why during the holidays* they invited Tom.  
 d. I promise that *during the holidays on no account* will I write a paper.  
 e. \*I promise that *on no account will during the holidays* I write a paper.

부정어 전치와 주절의 Wh이동이 유사하며, 화제화 이동은 이들과 상이하다는 점은 의미상 화제어가 초점의 의미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과도 관련된다. 즉, 화제화에서는 SAI가 없다는 것과 anything, ever와 같은 극성어(polarity items)를 허가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24) a. \*I swear that during the holidays *will I* write a paper.  
 b. \*I swear that during the holidays I will *ever* go there.

### 3. 3. 남은 문제

SAI를 Focus구문과 연관시키는 새로운 제안에도 문제는 있다. 먼저, 주절의 주어 이동 구문에서 who가 이동한 것이라면 SAI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 (25) Who left?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가능성은 주절의 Wh이동이 FocP로 가기 전에 주어 위치에서 I의 [uFoc]자질을 점검해주었기 때문에 I-to-Focus가 필요없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who는 focus 해석 자질 [Foc]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감탄문의 경우, SAI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절의 경우라도 CP이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다른 독자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다. 이와 반대로 예문(4)에서 예시되었던 의문문이 아닌 모든 SAI 구문에 대해서는 (부사구 전치등), 전치된 요소들이 FocP의 Spec으로 이동했으며, I-to-Focus가 일어났다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문사가 없는 예/아니오 의문문에 대해서는 공의문 운용소(null interrogative operator)가 CP가 아닌 FocP의 Spec에 있으며, Focus에 [+Q]와 [+Foc]가 있어 I-to-Focus를 일으킨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 론

주어-조동사 도치가 주절의 비 주어 의문사 이동에서 필수적인 반면, 주어 이동에서는 금지되는 이러한 비 대칭성의 문법 현상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었다. 뿐만 아니라 종속절에서는 비 주어와 주어 모두 SAI가 금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모색될 필요가 있었다. 최근 Pesetsky (1999)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보문소 *that*이 I 요소라는 것과 주격은 다름 아닌, DP의 비 해석적 시제자절, [uT] 이라는 다소 과격한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문법이론에서 격이론을 제거하여 최소이론의 기본 정신인 경제원리, 즉 최소의 도구로 최대의 자료를 설명한다는 데에는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설명력을 희생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설정된 C의 [uT] 자절 점검을 위해, *that* 이동과 주어 이동간의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의 핵심은 SAI를 I-to-C가 아닌 I-to-Foc 이동으로 보는 점인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Wh이동이 주절과 종속절에서 착지점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약정적인 요소가 없다는 이론 내적인 장점과 함께 Pesetsky 분석이 미 해결한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장점도 있다.

## REFERENCE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 Chomsky, N. (1998). Minimalist inquiries: The program.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 Cho, E. (1997). *Why, contrastive topic, and LF mo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 Haegeman, L., & Gueron, J. (1999). *English grammar: A generative perspective*. Oxford, UK: Blackwell.
- Hornstein, N. (1995). *Logical form: From GB to minimalism*. Cambridge: Blackwell.
- Kim, K. S. (1990). Where do the contrastive and focus readings come from? In H. Hoji (Ed.), *Japanese Korean Linguistics I*. Stanford, CA: CSLI
- Kim, Y. S. (1999). *Topicalization and left dislocation in English*. Paper presented at Autumn conference of Korea Modern Linguistics Associ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S. Korea.
- Pesetsky, D. (1998). *Phrasal movement and its ki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IT.
- Pesetsky, D. (1999). *Syntactic categories and movement*. Handout for a talk at LSA Summer Institut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IL.
- Pollock, J. Y. (1997). Notes on clause structure. In L.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Dordrecht: Kluwer.
- Puskas, G. (1997). Focus and the CP domain. In L. Haegeman (Ed.), *The new comparative syntax*. Harlow: Addison Wesley Longman.
- Richards, N. (1977). *What moves where in which languages?* Doctoral dissertation. MIT.
- Rizzi, L. (1990). *Relativized minimality*. MA: MIT Press.

- Rizzi, L.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pp. 234-262). Kluwar.
- Suh, J. H. (1999). A note on operator binding in multiple OP constructions in Korean.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15(2).
- Uriagereka, J. (1998). *Minimal restrictions on Basque movements*. MS: University of Maryland.
- Yoon., & James, H. S. (1998). *The functional structure of the (ad)nominal phrase in Korean*. Paper presented at Symposium on Diachronic and Synchronic Studies of the Syntax of East Asian Languages.